

# 남해화학-휴켄스 분할후 10월7일 재상장

남해화학이 기업분할로 9월12일부터 거래가 정지되고 10월7일 다시 상장된다.

남해화학은 사업전문화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정밀화학과 비료사업을 분리했으며, 거래정지기간을 거친 뒤 10월7일 휴켄스와 남해화학으로 분할해 재상장할 예정이라고 9월10일 밝혔다.

분할비율은 7대3으로 10주를 가진 기존주주는 분할 후 남해화학 주식 7주와 휴켄스 3주를 교부받게 된다. 분할방식은 분할되는 회사의 모든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인적분할이다.

< Chemical Daily News 2002/ 09/ 11 >